



‘소아마비 박멸기금 마련을 위한 2018 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0월 3일(수) 중앙고등학교, 로타리안 및 로타랙터 등 180여명 참여



국제로타리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지구대표 정창화)이 주관하고, 로타리의 청년 봉사단체인 로타랙트 클럽과 후원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아마비 박멸기금 마련을 위한 2018 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3일(수)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중앙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150여명의 로타랙트들과 장세호 총재를 비롯한 각 클럽 로타리안 및 가족 3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0월 24일 세계소아마비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 ‘소아마비 박멸 봉사기금’을 마련하고, 특히 로타리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로타랙터들도 소아마비 박멸 기금을 직접 기부하며 로타리 봉사사업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특히 로타랙트클럽을 스폰서하는 여러 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줄다리기, 축구, 계주 이어달리기, 짝피구, 발야구 등의 단체경기를 로타랙터들과 함께 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마련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30개 클럽에서 261만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



2018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 후원금 현황

2018.10.17

클럽	후원 금액(원)
3, 6지역 공동봉사성금 (17-18년도)	500,000
서울인터코리아	100,000
서울한강	200,000
서울장안	50,000
서울성동	50,000
서울SRS	100,000
서울C&C	50,000
서서울	50,000
서울안암	50,000
뉴서울	100,000
서울관훈	100,000
서울예지	60,000
서울예정	50,000
한남	50,000
서울중앙	100,000
서울무악	100,000
서울	100,000
서울새한빛	50,000
한양	100,000
서울삼청-청계 위성	50,000
서울아르떼	100,000
서울회현	100,000
새한양	50,000
새강북	50,000
서울장충	50,000
서울코암	100,000
서울아미	50,000
한성	50,000
서울북악	50,000
합계	2,610,000

소아마비 박멸운동에 동참하며 열정과 기쁨을 함께 공유한 소중한 순간

제1회 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소감



지난 10월 3일, 우리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은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중앙고 대운동장에서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2018 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로타랙트 한마음 체육대회는 총 130여명의 로타랙터들이 네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하였고,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계주 등 총 6개 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로타랙터 뿐만 아니라 로타리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 서로간의 화합을 맞춰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임원으로서 참여한 이번 제1회 로타랙트 체육대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루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 하루 뿐만이 아닌 당일을 위해 준비했던 여러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는 보람에 마음이 아직도 벅칩니다. 로타랙트 지구임원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해왔지만,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 지구임원 모두 유독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아무래도 로타랙트 지구연합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덕성 로타랙트클럽 김민제
로타랙트 연합 사회봉사 국제교류위원

이번 지구임원들을 믿고 참가해주시는 로타랙터들과 로타리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금 힘들더라도 사전답사와 회의를 반복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대회 전 날 까지도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할 만 한 자료도 많이 없어서 사소한 것들까지 오토이 다 생각해내야 해서 어렵기도 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한 결과, 기대에 힘입어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독 열심히 준비했던 이유는 또, 행사에서 로타리안과 로타랙터 간의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구임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임원들은 그저 로타랙터들 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참석 해주신 로타리 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줄다리기와 공굴리기 종목에서는 로타랙터와 로타리안이 함께 참가할 수 있게 기획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 경기를 이겨나가는 협동심과 유대감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에서 파파존스 피자(서창우 지구연수위원장/서울남산RC)와 페리에(전순재/서울RC), 삼양사(김량/서울남산RC) 등 로타리안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로타랙터들의 간식과 경품추첨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음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650지구 체육대회가 소아마비 박멸 캠페인 성금 모금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로타랙트 체육대회가 10월에 진행되었고, 이에 다가오는 세계 소아마비의 날(10월 24일)을 맞이하여 소아마비 박멸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개최식 때 각 로타랙트클럽과 로타리클럽에서 소아마비 박멸운동 모금을 함께 진행하여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폴리오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모금에 참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무더웠던 초가을 날,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열정과 기쁨을 공유한 순간을 마련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장세호 총재님과 육심강 로타랙트위원장을 비롯한 로타리안 여러분들과 참가해준 130여명의 각 클럽 로타랙터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

